



Deloitte in Media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제 48 호 | 2021.02.26

언론에 보도된 딜로이트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Contents

유럽 CFO 70% “ESG, 자본 비용에 미치는 영향 커질 것” (이데일리, 12.23)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원격의료 M&A 증가할 것” (파이낸셜뉴스, 12.31)

[미리 보는 CES 2021] 코로나 테크가 뜬다 (아주경제, 1.7)

[단독] 전자랜드, 프로농구단 공개매각 나선다 (매일경제, 1.18)

NH 증권 사상 첫 녹색채권, 딜로이트 안진 인증 (더벨, 1.19)

세계는 전기차 기술경쟁 치열한데... 후발주자 신세 못 벗어난 한국 (디지털타임스, 1.21)

전자랜드 매각 주관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한다.” (스포츠동아, 1.25)

2050년까지 식품수요 50% 증가 전망... 첨단농업 발전시켜야 (연합인포맥스, 1.29)

“언제까지 외국 ESG에 맞추텐가... ‘한국형 모델’ 만들면 새 기회” (매일경제, 2.3)

[전기차 판도] “소비자 10명중 7명, 전기차는 환경규제로 반드시 구매할 차종” (아주경제, 2.14)

유럽 CFO 70% “ESG, 자본 비용에 미치는 영향 커질 것” (이데일리, 12.23)



유럽 재무책임자(CFO) 10 명중 7 명은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성과가 향후 3 년 후 자본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22 일 유럽 18 개국의 CFO 992 명의 ESG 설문조사를 분석한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금융: 지속가능금융을 시작하는 유럽의 CFO 들’ 리포트를 통해 “ESG 성과가 현재 자본 비용에 큰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CFO 는 12%였다”면서도 “향후 3 년 후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할 경우 이 비중은 3 배 가량 증가해, ESG 이슈는 장기적으로 경영상 우선순위가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타 산업에 비해 특히 에너지와 유틸리티, 광업 기업들이 ESG 성과가 현재 및 3 년 후 자본 비용에 큰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청정 에너지원 전환이 오랫동안 주목 받아왔고 미래에도 기업의 우선순위일 전망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는 게 딜로이트 측 설명이다.

제 3 자가 산정하는 ESG 등급이 투자자와 대출 기관의 의사결정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CFO 의 63%는 연관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ESG 등급 산출은 표준화된 기준이 없으며, 평가 기업들은 새로운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준을 업데이트 하고있는 상황이다

응답자의 72%는 ESG 가 기업 전략에 포함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56%는 이와 더불어 투자자와 대출 기관에게 장기적 비즈니스 성과에 대한 실정을 ESG 지표로 알리고 있다고 답했다.

딜로이트는 “한 때 재무 이슈 중에서는 부수적인 사안으로 여겨졌던 ESG 문제가 이제는 기업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험이자 기회로 비춰지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금융 시장에도 변화가 진행 중이며, 기업들이 자금을 배분하고 투자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재무 부서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관련 부서를 체계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또 관련 전문가와 다양한 시나리오를 다룰 수 있는 모델링 역량을 갖추고, 정보 수집과 전달을 디지털화 및 자동화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처음으로 가기>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원격의료 M&A 증가할 것” (파이낸셜뉴스, 12.31)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원격 의료 인수합병(M&A)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 세계 영상 진료 시장의 성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향후 영상 진료가 주류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31 일 발간한 ‘COVID-19 가 촉진한 원격 의료’ 제하의 보고서에서 “2020 년 1·4~2·4 분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의료 혁신 자금이 2019 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91 억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8 월 텔라닥(Teladoc)이 리봉고(Livongo)를 185 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원격의료 업계의 두 선두 기업이 하나로 합쳐진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대규모 M&A 가 아니더라도 원격 의료 M&A 가 더 많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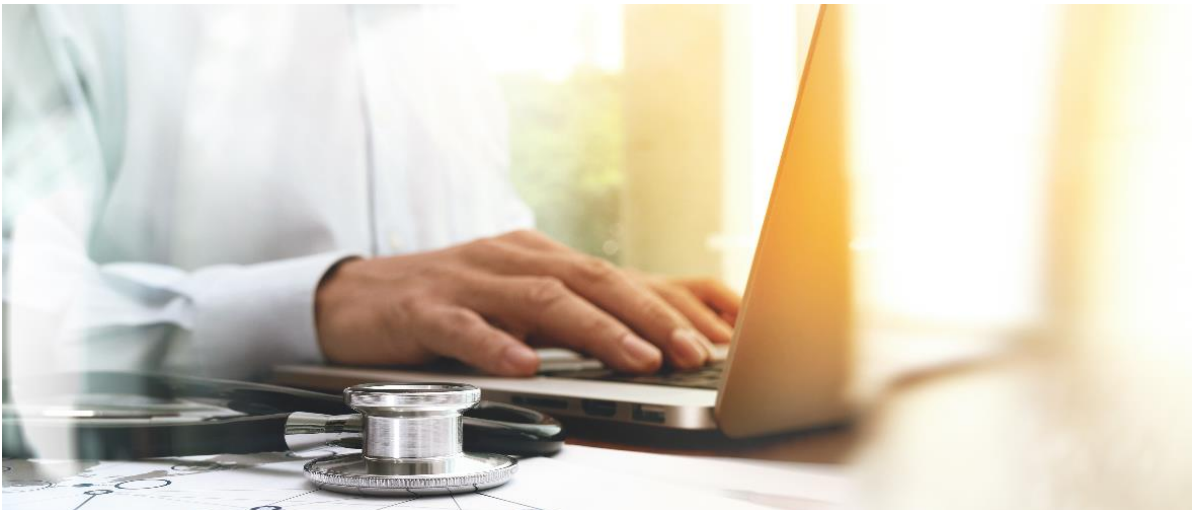
또 “영상 진료의 성장은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가령 통신 산업은 가상 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한 널리 확산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료용 모니터링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는 영상 진료의 성장으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2021 년에 전 세계 영상 진료료가 약 250 억 달러에 해당하는 4 억 건 이상에 달할 것”이라면서 “코로나 19 로 인해 영상 통화 사용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병원 이용률이 높은 노년층이 영상 통화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영국에서는 지난 5 년 동안 65 세 이상 고령층 사이에서 IT 기기 소유가 67%에서 96%로 대폭 증가했다”면서 “또 미국의 65 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사용량은 57%에서 73%로 16%포인트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노년층이 보유한 기기가 온라인 연결이 불가하다면 소용이 없겠지만, 65 세 이상의 온라인 연결 기기 보유 양상도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면서 “2019 년에 모든 고령층이 온라인 접속 가능한 기기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보급률 증가 추세에 팬데믹 효과가 결합되면서 2020 년 중반까지는 그 비중이 3·4 이상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처음으로 가기>



[미리 보는 CES 2021] 코로나 테크가 뜬다 (아주경제, 1.7)

처음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CES 2021'이지만, 전 세계 기업이 미래 기술을 뽐내는 기술 경쟁의 장이란 점은 그대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 로 인한 사회와 기술의 변화가 행사의 핵심 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7 일 글로벌 컨설팅 업체 딜로이트는 '2021 년 주목해야 할 5 가지 트렌드' 보고서를 통해 △5G 미신(5G Myths) △가상현실 교육(VR Comes to Education) △원격의료(Virtual Doctor Visits) △수치화된 운동(Hyperquantified Athlete) △차세대(8K) TV 등 5 가지 미래 기술이 'CES 2021'에서 주목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딜로이트는 "코로나 19 를 빼고 2021 년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코로나 19 의 유행으로 인해 기술·미디어·통신 업계는 지난 5 년보다 최근 5 개월간 변화가 더 컸다. 코로나 19 가 사회와 기술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먼저 딜로이트는 전 세계 이동통신사가 5G 망 확대를 두고 이용자와 소통을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이용자 중 3 분의 1 이 5G 전파가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선 5G 전파를 통해 코로나 19 가 확산되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말까지 나온다. 이용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통사는 정부와 소통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5G 의 정확한 작동 방식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5G 망을 깔고 가입자를 확대시키는 일을 넘어, 정부·이용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첫걸음이라는 설명이다.

2021 년은 비대면 교육이 일상으로 정착하는 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코로나 19 로 인해 가상·증강·혼합현실(VR·AR·XR)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의 확산은 피할 수 없다. 지난해 헤드셋, 서비스 등을 포함한 전 세계 혼합현실 관련 지출은 120 억 달러(약 13 조 원)에 달했고, 2024 년까지 매년 50%씩 급성장할 전망이다. 코로나 19 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지면서 여러 교육 기관이 경쟁적으로 혼합현실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도입하고 있다.

감염병 확산 우려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가 급격히 풀리고 있다. 올해 전 세계 의료 행위의 5%가 원격으로 진행되며, 시장 규모는 80 억 달러(약 8 조 7000 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전문 치료·모니터링 기기부터 스마트워치까지 330 억 달러(약 35 조 9000 억 원) 규모의 헬스케어 기기와 기술이 올해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 대비 20% 성장한 수치다. 딜로이트는 원격의료와 헬스케어 기술의 성장으로 의료 서비스 선택권이 의사에서 이용자로 넘어오는 '맞춤형 이용자 건강'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 년부터 활성화된 데이터 기반 운동은 올해 수치화된 운동으로 구체화된다. 2021 년 말까지 전 세계 많은 스포츠 리그가 인공지능(AI) 비전과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선수들의 운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새 정책을 수립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스포츠 리그와 구단은 팬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새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8K TV 의 경우 올해 전 세계에서 100 만대 이상이 판매되며 총 33 억 달러(약 3 조 6000 억 원)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 대비 2 배 성장한 규모다. 딜로이트는 이용자가 8K 콘텐츠 확산, 얼리어댑터의 관심 증가, 8K 라는 단어가 주는 기술적 만족감, 다른 첨단 기술과의 융합 등 이유로 8K TV 를 가까이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LG 전자는 CES 2021 에서 차세대 TV 모델을 선보이며 올해 8K TV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처음으로 가기>

[단독] 전자랜드, 프로농구단 공개매각 나선다 (매일경제, 1.18)

남자 프로농구 구단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가 공개매각 방식으로 새 주인 찾기에 나섰다.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이 매각 자문사를 선정해 공개매각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년 만에 시장에 나온 프로농구단 매물이라는 점과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이 주도권을 쥐고 매각에 나선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KBL 이 다른 프로리그와 비교해 구단 운영 효율성이 높다는 점과 코로나 19 사태 등 외부 요인이 오히려 인수 후보들에게 재무적으로 합리적인 매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포츠 마케팅에 관심이 많은 금융사와 게임사·소비재 관련 기업들이 잠재 인수 후보로 꼽힌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와 KBL 등에 따르면 KBL은 최근 매각이 결정된 에스와이에스리테일 소유의 인천 전자랜드 농구단을 효율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입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의 공개매각은 이번이 처음이며, 특히 구단이 아닌 KBL이 외부의 공신력 있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해 매각 작업을 이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KBL은 종전 수익계약 형태로 진행하던 매각 방식에서 벗어나 정보를 투명하고 세심하게 공개해 보다 많은 대상이 접근 가능하게 함으로써 최적의 매수자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프로 농구단 신규 창단은 한정된 리그 규모(10구단 체제), 초기 투자비, 연고지 선정 등 진입 장벽이 높고 구단 인수 시 평균 운영 기간이 20년으로 길기 때문에 매물이 극히 적다. KBL은 이번 인천 전자랜드 농구단이 15년 만에 시장에 나왔다는 점, 다른 프로스포츠 종목 대비 구단 효율성이 높다는 점과 함께 코로나 19 등 외부 요인이 오히려 재무적으로 합리적인 매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스포츠 마케팅에 관심이 많은 금융사와 게임·소비재 관련 기업들을 잠재적인 인수 후보로 꼽고 있다. 이와 관련해 KBL은 인천 전자랜드 농구단이 국내 프로농구 발전에 공헌한 점을 고려해 리그와 함께 한국 농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매수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3월 초까지 입찰 서류를 제출받은 후 인수 금액, 대금 지불능력, 매입 후 활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인천 전자랜드 전신은 프로농구 출범 원년인 1997년부터 리그와 함께했던 대우증권이다. 대우그룹이 해체되고 신세기통신으로 주인이 바뀐 후 2001년까지 인천 신세기 빅스로 운영되다가 다시 SK 그룹이 신세기통신을 인수하면서 2003년까지 인천 SK 빅스로 활동했다. 다만 '한 기업이 두 팀을 운영할 수 없다'는 KBL 규정에 따라 이미 서울 SK 나이츠를 운영 중이던 SK 측은 팀 매각 작업에 들어갔고 전자랜드가 새 주인이 됐다.

인천 전자랜드 농구단은 2010년대 초반 모기업이 자금난을 겪었을 때 소속 선수들이 직접 길거리로 나와 농구 팬들을 불러모았을 정도로 대물림되는 소속감과 끈끈함이 장점으로 평가된다.

<처음으로 가기>

NH 증권 사상 첫 녹색채권, 딜로이트 안진 인증 (더벨, 1.19)

NH 투자증권이 사상 처음으로 SRI 채권(사회책임투자채권, ESG 채권)을 발행한다. 발전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인 만큼 녹색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딜로이트 안진이 녹색채권의 사전검증·관리체계 인증업무를 맡았다. 딜로이트 안진에게 있어 NH 투자증권 녹색채권은 올 들어 두 번째 수주다.

18일 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NH 투자증권이 2월 초중순경 SRI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NH 투자증권 관계자는 “한국중부발전 등 발전사와 협력하는 것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녹색채권을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NH 투자증권이 국내 증권사 사상 처음으로 원화 SRI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2018년 원화 SRI 채권 시장이 열린 이래 은행과 캐피탈사, 카드사 등 민간 금융사들이 발행대열에 참여했지만 증권사는 아직 합류하지 않았다.

발행규모도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NH 투자증권은 올해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공모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다만 상반기와 하반기 두세차례에 걸쳐 공모채를 찍을 예정이다. 지난해 공모채 발행규모가 6000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SRI 채권 발행규모는 2000억~3000억 원에 이를 수도 있다.

NH 투자증권은 사상 첫 SRI 채권 인증기관으로 딜로이트 안진을 낙점했다. NH 투자증권은 “현재 협상 등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르면 이번 주 초 계약 등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딜로이트 안진으로서는 올 들어 두 번째 SRI 채권 인증업무 수주다. 딜로이트 안진은 현대오일뱅크의 녹색채권으로 올해 첫 인증업무를 개시했다. 현대오일뱅크의 녹색채권 인증보고서는 18일 증권신고서와 함께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NH 투자증권이 딜로이트 안진과 신용평가사 중 누구에게 인증업무를 발주할지 고민하다 최종적으로 회계법인을 선택했다”며 “신용평가사에게 인증업무를 맡기면 자금 투입 프로젝트가 바뀔 때마다 수천만 원을 들여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SRI 채권 인증시장은 딜로이트 안진 등 회계법인과 한국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들이 양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인증방식은 조금 다르다. 딜로이트 안진은 관리체계를 인증하기에 자금 투입 프로젝트가 바뀌어도 관리체계만 바뀌지 않는다면 추가로 인증받지 않아도 SRI 채권을 반복해서 발행할 수 있다.

반면 신용평가사들은 인증보고서에 SRI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이 어떤 프로젝트에 쓰이는지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금 투입 프로젝트가 바뀌면 관리체계를 바꾸지 않더라도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관계자는 “NH 투자증권 등 증권사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만큼 자칫 매년 수천만 원씩 들여 SRI 채권 인증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딜로이트 안진을 인증기관으로 선정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NH 투자증권이 계획대로 2월 녹색채권을 발행한다면 환경부가 찾는 ‘모범 발행사’로 선정될 가능성도 떠오른다. 환경부는 2020년 12월 말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 기준에 따라 인증보고서를 내고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을 물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처음으로 가기>

세계는 전기차 기술경쟁 치열한데... 후발주자 신세 못 벗어난 한국 (디지털타임스, 1.21)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마련됐지만, 실제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은 다른 주요국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과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 전기차 관련 업체 수와 판매량이 큰 폭으로 뒤지는 상황이라, 이를 뒷받침할 정부 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 일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중국은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신(新)에너지차(전기·수소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차 판매량을 각각 50%로 늘리는 '자동차 기술 로드맵 2.0'을 추진하고 있다.

당장 올해는 폐지될 예정이던 신에너지차 취득세 감면 정책을 2022년까지로 연장하면서 전기차 등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는 목표다. 김성애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시니어 스페셜리스트는 "친환경화는 중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 방향"이라며 "우리 기업들도 정국 정부의 자동차 정책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핵심 기술 개발과 투자, 다양한 사양의 부품 연구·개발(R&D) 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면서 전기차 산업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신임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2030년까지 △미국 내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 추가 설치 △버스 생산분 무탄소 전기버스로 전환 등 친환경차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자동차 산업에서 10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까지 내걸었던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전기차 산업이 더 활황기를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미국 GM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같은 미래 산업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올해 1분기 중 전기차 관련 엔지니어링 인력 등 3000명을 추가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포드 역시 독일 폭스바겐과 미래차 기술투자 협력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전기차 기술 개발에 앞다퉈 나서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후발주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세계 전기차 제조업체 가운데 한국 기업은 1곳에 불과하다. 중국(18곳), 미국·독일(각 3곳), 프랑스·일본(각 2곳)에 비하면 수적으로 열세인 셈이다.

더구나 전기차 판매량도 한국(12만 1952대)은 중국(97만 5803대)이나 미국(48만 8576대)에 비해 적게는 4배에서 많게는 8배 이상 적다. 대표적인 인프라 중 하나인 한국의 전기차 충전기 수(2만 3000개)는 남한 대비 국토면적이 3.3배 큰 일본(22만 7000개)에 비해서도 열세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회사 딜로이트가 발간한 '전기차 시장 전망'에 따르면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오는 2025년 1120만대에서 2030년 3110만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환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자동차 부문 리더) 상무는 "이러한 성장은 소비자 인식 변화와 정책·규제 등에 따라 촉진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처음으로 가기>

전자랜드 매각 주관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한다” (스포츠동아, 1.25)

KBL 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주관사로 선정해 인천 전자랜드 매각 입찰을 진행 중이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내 스포츠비즈니스그룹이 매각과 관련을 책임지고 있다. 전자랜드 매각은 프로농구계뿐 아니라 프로스포츠유관단체와 스포츠비즈니스계가 주시하고 있다. 이전까지 프로구단이 매물로 나오면 인맥 등을 통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회계법인이 참여하고, 입찰방식을 이뤄지는 건 사실상 처음이다. 우려 반 기대 반의 시선이 존재한다. 매각이 이뤄지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모두가 큰 상처를 입게 된다. 이번 매각 작업을 선두에서 지휘하고 있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스포츠비즈니스그룹 담당자로부터 추진 전략 등에 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입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색다른 시도인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산업적으로 스포츠를 바라봤다. 스포츠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40 년 넘게 유지됐다. 산업적으로 보면 이런 케이스는 매우 드물다. 고민하지 않은 결과다.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시대로의 발전을 위한 시작이 이번 매각 작업이라고 봤다. 공개적인 공정한 입찰 과정을 통해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KBL 도 전향적인 생각으로 뜻을 모아줬다. 인맥 등을 동원하는 네트워크 혹은 탐다운 방식의 매각은 공정가가 아니라고 봤다. 프로농구에 오랜 기간 기여한 전자랜드에게 좋은 새 주인은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 인적 네트워크 활용은 목적을 100% 이룰 수 없다. 양보해야 할 부분도 있다. 매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공정, 공평한 기회를 주는 차원도 있다. 해외에서는 스포츠 구단 매매가 빈번하게 이뤄진다. 여러 경로를 통해 매각 작업이 이뤄진다. 이번에 시도하는 새로운 매각 방식이 스포츠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이다.”

-어떤 과정으로 입찰과 매수가 결정이 진행되나.

“KBL 홈페이지에 입찰 공고가 됐다. 매입을 원하는 곳에서 연락이 오면 일차적으로 간략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런 뒤 비밀유지확약서를 제출하는 회사들에게 풀 버전의 제안서를 제공한다. 풀 버전의 제안서에는 가격(매각대금)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기기 때문에 비밀유지확약서를 받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앉아서 기다리는 건 아니다. 풀 마케팅과 푸시 마케팅을 동시에 진행한다. 매수 희망자들이 전자랜드 매각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돕고 있다. 3 월 2 일에 접수를 받는다. 별도의 장소가 마련될 것이다. 입찰을 마감한 뒤 KBL, 전자랜드 관계자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입찰서를 확인한다. 그런 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1~3 순위까지 고려 중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있어 금액만으로 평가하진 않는다. 재무 상태, 구단 이수 후 운영 계획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매수 희망자들을 입찰에 끌어들이기 위한 어필 포인트가 있을 듯 하다.

“흔히 국내에 4 대 프로스포츠가 있다.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이다. 겨울스포츠로 보면 농구와 배구다. 팬들에게 다가갈 수는 매개체다. 지금까지 구단 입장에서는 투자의 개념이다. 기업이 스포츠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다양하지만 예전 패러다임 하에서는 구단을 소유하고 있다는 게 자부심이나 자랑거리는 아닌 상황이다. 하지만 프로스포츠는 사회공헌의 가치, 엔터테인먼트 요소 등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다.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고, 참여의 기회까지 제공한다. 사회적 임팩트가 매우 크다고 본다. 기업의 ESG(기업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투명 경영 등 비 재무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 차원에서도 구단을 운영해 시민들과 같이하는 장을 만드는 의미가 있다.”

-프로농구단 전자랜드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일반적으로 빅 4 회계법인은 감사와 M&A 업무를 주로 한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M&A 리그에서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다. 더불어 스포츠비즈니스 그룹을 보유하고 있다. 딜로이트 글로벌 내 스포츠비즈니스 그룹은 31 개국에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이러한 노하우들이 전자랜드 매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전자랜드 매각 포인트 몇 가지가 있다. 지난 10 년간 한국프로스포츠에 구단 매각 사례가 없었다. 대부분이 창단이었다. 15 년 만에 나온 매물이라는 점에서 매력 포인트가 있다고 본다. 4 대 프로리그 구단들과 비교했을 때 운영비가 효율적이고 저렴하다. 게다가 전자랜드는 로열티를 가진 팬을 확보했고, 성적에 비해 충성도가 높다. 관중유치능력이 좋다. 경기당 승리 비용(한 경기를 승리하기 위해 투입되는 자금)이 상당히 효율적이다. 샐러리 캡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저 비용으로 고 효율을 내는 구단이라고 본다.”

-그러나 프로농구단은 실질적인 자산이 없는 등 가치를 수치화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전자랜드 구단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스포츠산업 상업화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특수 관계자(모기업과 그 자회사) 수익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다. 구단도 별도의 상업체(법인 등)로 분리가 되지 않는다. 재무제표 분석도 쉽지 않은 현실이었다. 나름대로 만들어가면서 했다. 글로벌에서 하고 있는 오랜 동안 가진 업력이 기반이 됐다. 우리가 분석 풀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 리그 전체에서 발생하는 수입, 10 구단 전체로 본 수익을 따져봤다. 한 구단이 독립적으로 잘 해서 이뤄진 부분도 있겠지만 구단간의 경기, 경쟁구도 등 구단간의 시너지도 반영된 결과다. 이 부분에 전자랜드가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뽑아냈다. 기초적인 정량적인 금액은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정량적인 정보를 가장 아래에 두고 그 위에 전자랜드 갖고 있는 정성적인 장점을 분석해서 재무적 가치 위에 두는 바텀-업 방식으로 가치를 산출했다. 정성적 요소는 7 가지 정도를 찾았다. 구단이 갖고 있는 정성적인 요소는 향후 더 늘어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기업들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데.

“코로나 19 상황은 동전의 양면으로 봤다. 코로나 19 때문에 저가 매수 가능하다고 본다. 이번은 수의 계약 형태의 단순한 손 바뀜이 아니다. 호재로 느끼는 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기업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 주식 가치가 높는데 현재는 주가가 떨어져 있다고 보면 될 듯 하다. 코로나 19 로 다양한 곳에서 패러다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스포츠로 보면 관중에서 중계를 지켜보는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 그렇다고 스포츠정신과 가치가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관중들이 없지만 프로스포츠 구단 운영으로 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효과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전자랜드 매각 입찰 사실이 공개된 뒤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지.

“달아오르고 있다고 본다. 일주일 정도 됐는데 감지를 할 수 있다는 정도다. 프로스포츠는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산업이다. 구단의 소유자와 이름이 바뀌는 일이다. 공개 입찰을 진행하면서 기사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많은 버즈도 일어나고 있다. 전자랜드뿐 아니라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매각에 참여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본다. 팬들이 많이 유입되는 부분 또한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 있다.”

-입찰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좋지만 반대의 경우 타격이 클 듯 하다.

“그 부분에서 KBL 이 고민을 많이 했다.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 전자랜드와 KBL 입장도 중요하다. 전자랜드를 제외한 9 개 구단의 입장도 중요하다. 입찰이 끝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KBL 과 협의하면서 공감했던 부분이 10 개 구단이 유지돼야 한다는 부분이다. 입찰에 모든 걸 쏟는다는 계획이다. 결과에 따른 후속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언급할 상황은 아니다.”

<처음으로 가기>

2050년까지 식품수요 50% 증가 전망…첨단농업 발전시켜야 (연합인포맥스, 1.29)



2050년까지 전 세계 식품 수요가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첨단농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29일 발간한 ‘식품의 미래’ 보고서에서 “전 세계 인구가 2050년까지 100억 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식품 수요도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현재와 같은 식품 생산 시스템으로는 지구환경이 악화할 수 있어 이전보다 환경에 대한 영향이 적고, 효과적인 첨단농업 등의 생산 관행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첨단 농업은 잡초를 제거하는 기기나 로봇, 수확하는 자율로봇 등 농업에 지능(intelligence)을 도입한 정밀농업 기법이나 농지를 늘리지 않고 생산량을 늘리는 수직 농업 등을 포함한다.

유전체 선발로 저항력이 높고, 수확량이 많은 작물을 생산하는 게놈 기반의 개선 작업이나 대체 단백질을 활용하는 것도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이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의식 있는 식품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밀레니얼 세대 중 73%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할 때 기꺼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식품의 가치 사슬을 추적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실제 미국 식품회사 카길은 ‘코코아와이즈’ 플랫폼을 출시해 고객들이 카길의 코코아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식물성 식품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지속가능한 식품 체계로 변화하는 방법으로 꼽혔다.

최근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같은 기업이 식물성 버거나 너겟 같은 비건 메뉴를 출시하며 식물성 식품 선호 트렌드에 대응하고 있다.

또 유전자 변형을 통해 농작물 생산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도 진행되고 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혁신을 진행하고 책임감 있는 식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협력을 통해 지구의 한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전 세계 인구에게 식품을 조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처음으로 가기>

“언제까지 외국 ESG 에 맞출텐가... ‘한국형 모델’ 만들면 새 기회” (매일경제, 2.3)

2050년까지 환경·책임·투명경영을 뜻하는 ‘ESG’ 열풍이 뜨겁다. 글로벌 기업들이 넷제로(net zero·탄소배출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와 RE100(신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속속 선언한 가운데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사회적 책임과 투명경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 등 선진국들은 ESG 공시를 속속 의무화했다. 선진국들이 기후변화와 맞물려 ESG 규제를 보다 구체화한다면 한국 수출기업들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매일경제는 ESG 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홍종성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 윤덕찬 지속가능발전소 대표와 전문가 간담회를 1시간가량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의 ESG 현주소는.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ESG 라는 개념을 한 번이라도 접한 적이 있나’라는 조사에서 응답자의 60%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국민이 ESG 를 알아야 기업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유럽에서 200여년 걸린 산업화를 우리는 40~50년 만에 빠르게 이뤄냈지만 그 결과 에너지 과소비 국가로서 심각한 환경 문제에 직면했다. 투명성 논란과 안전사고도 발생했다. 그러나 한국은 기술이 있고 변화에 언제나 신속히 대응해왔다. 앞으로 5년, 10년 확실한 목표를 세워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힘을 합치면 한국형 ESG 모델을 개발하고 표준화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

▷홍종성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전 세계 ESG 열풍 속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가 중요하다. 기업 입장에서 ESG 는 선택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반드시 가야 할 숙제다.

ESG 는 기회이자 리스크인데.

▷홍 대표=글로벌 펀드들이 ESG 를 갖대로 평가해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화두도 ESG 와 디지털 전환이다. 앞으로 투자를 받거나 주식시장에 상장하려고 할 때 ESG 를 준비하지 못한 기업에는 큰 리스크 요인이 된다.

▷최 이사장=연말마다 연탄을 배달하는 사회공헌 활동이 등장한다. 기업이 이런 것에 홍보비를 쓰는 건 끝내야 한다. 이제는 실질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30년 전에 기후재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는 ‘늑대가 나타났다’는 식의 거짓말로 인식됐지만, 지금은 남극·북극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올라가는 게 현실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인간이 살아남을 수 없다. 긴박감을 갖고 집중적으로 ESG 를 준비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라는 산업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좋은 전략을 세워 ESG 모델을 정착시키고 극복 과정을 개발도상국에 보급했으면 한다.

▷윤덕찬 지속가능발전소 대표=ESG 는 3년 내에 강제성 있는 규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이는 서구 자본주의 체계모니가 전환되는 신호탄이다. ESG 가 바꾸는 미래는 단순히 기업만이 아니다. 금융과 산업, 사회를 같이 봐야 보인다. 지금껏 ESG 가 좋은 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평가요소였다면 앞으로는 ESG 를 기반으로 해서 자본 흐름을 전환하는 ‘지속가능 금융’이 저탄소 경계를 이끌어갈 일종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다.

기업의 ESG 대응 전략은.

▷홍 대표=앞으로 탄소중립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국처럼 수출주도형 경제에는 큰 위협 요인이다. 비즈니스 근간을 바꿔야 하는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 기업들에 ESG 경영은 새로운 도전인데, ESG 활동을 공시하고 검증 받고 그 결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AI) 기반의 다양한 기능을 통해 ESG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최 이사장=석유화학,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한 번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새로운 공정을 만들고 일자리를 전환하는 등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온실가스 저감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수출했다가 앞으로는 불량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 온실가스 탄소세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기술이 있으니 수소에너지부터 태양광, 풍력, 배터리 등을 재빠르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이다.

항목별로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나.

▷윤 대표=한국의 ESG 평가는 세계 46 개국 중 31 위(2018 년 모닝스타 자료)로 하위권이다. 특히 지배구조에서 44 위에 그쳤다. 국내 상장사의 ESG 뉴스를 분석한 결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 중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특히 도덕성이었다. 다음으로 산업안전과 노사관계가 문제점으로 꼽혔다.

기업들이 ESG 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윤 대표=ESG 평가는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좋은 회사를 고르도록 하는 것이다. 환경, 산업안전, 보건 등의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ESG 는 그 이상을 요구한다. 글로벌 기업들 중 RE100 선언과 함께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업이 나오고 있다.

▷최 이사장=이제는 과거의 관행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자녀에게 경영권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큰 결단이다. 요즘 오너와 최고경영자(CEO)들이 ESG 를 담당하는 의장을 맡는 등 전환점에 와 있다. ESG 를 실천하지 않으면 기업이 생존하기 힘들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으로 알게 됐다.

글로벌 기업들이 ESG 잣대를 강화하면서 한국 수출기업들도 영향권에 들어왔는데.

▷최 이사장=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을 속속 선언하고 있다. 이런 기업들이 RE100 협력업체에서만 제품을 구입하게 된다면 한국 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글로벌 부품 공급사인 삼성도 신재생에너지로 모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준비하지 못한다면 대안으로 탄소배출권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어야 하지만 한국전력에서 독점하는 현행 거래시스템이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는다.

주주 중심 경영이 끝났다고 보나.

▷홍 대표=과거에는 주주와 경영진이 기업의 주인이었지만 현재는 주주와 투자자뿐 아니라 직원, 고객, 공급업체, 지역사회 등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ESG 경영의 열쇠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수출 중단 막으려면 협력사 ESG 관리도 중요”

ESG 확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홍 대표=중견·중소기업들도 ESG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고 예측 가능한 규제를 설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고 전체적인 에코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윤 대표=정부는 지속가능금융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금융이 먼저 움직여야 산업이 움직인다. 저탄소경제 전환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재계에 던져줘야 한다.

▷최 이사장=앞으로 10 년 동안 기후변화에 대응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다음은 수습하기 어렵다. 당장에 탄소세를 매기면 기업들에 부담인데, 총량은 같지만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고 친환경기업에는 세금을 줄여주는 것도 정책 방향이 될 수 있다.

대기업 협력업체나 중소기업들은 ESG 대응이 막막한 상황일 텐데.

▷홍 대표=대기업이 ESG 로드맵을 실천하더라도 1~2 차 협력사들이 준비하지 못하면 결국 대기업 공급망이 붕괴될 수 있다. ESG 펀드가 활성화되어서 중견·중소기업들의 ESG 전략 수립을 도울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한다.

▷최 이사장=ESG 는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되어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에게 ESG 를 설명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했으면 한다.

▷윤 대표=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를 잘 관리하느냐가 ESG 평가에서 강조된다. 또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할 때 ESG 를 평가해서 우대해주는 지속가능 연계 대출을 마련해야 중소기업들의 ESG 경영을 유도할 수 있다.

<처음으로 가기>

[전기차 판도] “소비자 10 명중 7 명, 전기차는 환경규제로 반드시 구매할 차종” (아주경제, 2.14)

전기차 대중화 시대가 확실히 빨리 도래할 전망이다. 전세계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업들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몰두하면서 전기차는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 역시 이같은 생각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 일 시장조사업체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10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기 자동차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9%가 환경보호를 위해 전기차가 대중화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10 명 중 7 명은 향후 환경 규제로 반드시 구매해야 할 차종이 전기차라 답했다.

트렌드모니터는 현재 자동차를 보유 중이거나, 운전 경험이 있는 전국 만 19~59 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중복 응답이 가능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중장년층에서 전기차 대중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높았다. 50 대의 84.4%, 40 대의 84.4%가 환경보호를 위해 전기차 대중화가 꼭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3.2%는 환경 규제로 인해 전기차라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차종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고, 75.6%는 가까운 미래에 친환경 자동차로 모든 자동차가 대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휘발유나 경유 차량의 구매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도 60.2%로 응답자 절반을 넘었다.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차에 대한 주변 인식이 좋지 않은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7.6%, 전기차를 만드는 과정이 환경을 해치는 듯 한 느낌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4.6%에 불과했다.

다만 내연 기관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 편하다고 말하는 응답자가 72.9%에 달했다. 실제 전기차 사용 불편함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다.

응답자의 86.3%는 전기차를 이용하고 구매하는 사람이 앞으로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전기차가 대중화 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82.5%가 나왔다.

특히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는 2018 년 조사 때보다 오히려 커졌다. 전기차가 안전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2018 년 34.4%에서 28.2%로 줄었고, 안전 때문에 전기차가 구매 보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6.3%였다.

전기차를 구입하고 싶어 하는 소비자 의향은 2018 년보다 높아졌다. 2018 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8.3%가 전기차 구매를 고려해볼 것이라고 응답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58.2%가 구매 의향을 밝혔다. 향후 5 년 이내 자동차를 구매 계획이 있는 운전자의 64.5%가 전기차를 고려하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전기차 장점은 친환경(63.8%), 저렴한 전기 충전 비용(35.1%), 차량 유지비 절약(30.2%), 저소음(25.6%), 보조금 혜택(22.3%) 순으로 나타났다. 단점으로는 충전소 부족(60.1%), 오랜 충전 시간(60.1%), 짧은 주행 거리(31.3%) 등이 꼽혔다.

한편 한국 딜로이트 그룹이 최근 발간한 ‘전기차 시장 전망: 2030 년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 리포트에 따르면 향후 10 년 간 글로벌 전기차 시장 연평균 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은 2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판매량은 2020 년 250 만대, 2025 년 1120 만대, 2030 년 3110 만대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오는 2030 년까지 중국이 전세계 전기차 시장의 49%, 유럽이 27%, 미국이 1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차 판매량 중 전기차 비중은 국가별 차이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중국 내에서의 전기차 판매 비중이 2030 년 48%로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뒤 이어 미국 27%, 유럽 42% 순이었다. 그러면서 소비자 인식, 정책 및 규제, OEM 전략, 기업의 자동차 구매 등 4 가지 요인이 전기차 시장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성훈 한국 딜로이트 그룹 고객산업본부장은 “지난 2 년간 꾸준히 성장해온 전기차 시장은 COVID-19 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2030 년까지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라며 “다만 전기차에 주로 탑재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주 원료인 코발트와 니켈의 국제적인 수급과 가격의 변동, 그리고 향후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전고체배터리와 수소전지 기술의 향방이 전기차 산업의 전체적인 방향과 성장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음으로 가기>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